

“목숨 걸고 떠났던 북녘고향...한가위 되니 더 그리네요”

광주지역 탈북민들의 추석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이는 추석, 이듬만 들어도 녀석해지고 몸보다 마음이 먼저 달려가는 것이 추석 귀향길이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탈북민들은 갈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북녘의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며 올해 추석을 보내야할 처지다.

광주지역 탈북민들은 매년 추석 때 활동 차례를 지내며 동향 사람들끼리 그리움을 달래왔지만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인해 이마저도 취소되면서 한층 더 쓸쓸한 명절을 보내야하는 상황이다.

광주 시민단체인 시민행복발전소는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광주드림봉사단과 함께 지난 12일 명절 선물을 마련, 이들에게 전달하며 위로하기도 했다.

광주에서 키즈카페를 운영중인 김유라(가명·여·41·)씨는 16세에 어머니와 북을 떠나 중국을 거쳐 지난 2009년 한국 땅을 밟아 12년째 한국인으로 살고 있지만 명절 때마다 고향생각이 간절하다.

아버지 생사를 알 수는 없고, 외할머니가 생각나서 더욱 고향이 그리운다는 게 김씨 설명이다. 김씨는 “직접 온전해 어머니 모시고 북에 있는 외할머니 산소에 성묘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어린시절 자신을 키워준 외할머니 사진을 항상 간직하고 있다. 김씨가 중국에 있을 때, 공안을 피해 어렵게 보낸 돈으로 산 새옷을 입은 외할머니가 이모, 외삼촌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김씨는 “남한에서 결혼 후 만만느리모 모든 제사를 지내지만, 어린시절 자신을 예뻐했던 외할머니의 제사는 한번도 지내지 못하고 성묘 한번 못한

두고 온 가족생각 그리움 사무쳐 어울림 농장 찾아 서로 다독여 코로나에 합동차례 취소 ‘쓸쓸’ 광주시민 온정에 그나마 ‘위로’

는 생각에 마음이 미어진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김씨는 외할머니의 음력 생일이 추석 언저리여서 명절만 되면 더 외할머니 생각이 사무진다. 음력 8월이라는 것만 알고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해 더 마음이 아팠다고 한다. “김일성·김정일의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은 모두 기억하지만, 당장 외할머니의 생일은 기억하지 못한다는게 죄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탈북한 채명길(가명·여·48)씨는 명절이면 탈북민들의 공동 농장인 광주시 광산구 본량동의 주말농장을 찾는다. 채씨는 ‘북청물장수’로 잘 알려진 함경남도 북청군이 고향으로 탈북 당시 부모님과 언니·남동생을 두고 홀로 떠나왔다.

중국에서 5년을 살다 지난 2013년 한국으로 들어온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다. 광주 사람이 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단 하루도 가족과 고향을 잊어 본 적이 없다. 향수병과 우울감으로 밤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채씨는 간혹 조무사 일도 그만뒀다. 그래도 가족이 생각날 때면 광주드림봉사단이 운영하는 광산구 본량동 ‘한반도 어울림 농장’을 찾아 마음을 달랠다. 탈북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농장이라 여기에 가면 8~20명의 탈북민들과 고향 얘기를 할 수 있다. 깻잎, 상추 등 유기농 채소를 키워 반찬도 만들고 인근 독거노인들에

게도 드린다.

채씨는 “가족을 만나고 고향땅을 밟아보는 날이 오면 좋겠다”면서 “탈북민들을 같은 처지끼리 서로 만나 아픔을 나누고 위안을 받으며 견뎌나”고 웃었다.

지난 2010년 고향인 함경북도 나진에서 넘어온 나은혜(가명·여·67)씨는 추석을 앞두고 며칠째 북녘땅에 두고 온 아버지와 두 아들 생각에 잠이 오질 않는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브로커를 통해 주고 받은 아버지와 아들의 소식마저 끊겼다.

나씨는 “지나해부터 아버지 소식을 들을 길이 없어 답답하다”면서 “나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봉사단 활동을 하는 나씨는 아버지 또래의 어르신들을 찾아가 식사를 차려드리고, 집안 청소를 할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더욱 깊어진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추석, 나씨의 머리 속엔 아들과 도란도란 둘러앉아 송편을 빚으며 웃음꽃을 피웠던 기억과 어머니 산소를 찾아 이야기를 나눴던 생각이 가득하다.

나씨는 “북을 떠나면서 다시는 어머니 산소를 못 찾는 불효자가 됐다.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고 싶은데...”라고 말했다.

명절음식 생각도 난다. 고산저대인 나진에서 많이 나는 감자로 만들어 먹던 감자떡과 감자전도 한국에서는 그 맛이 나지 않는다.

나씨는 올 추석 때 탈북민들과 만나 명절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허전하고 우울한 마음을 달랠 생각이다. 나씨는 “아버지를 언제 만날 지 모르지만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명절 키트 나눠요

추석 연휴를 앞둔 16일 오전 광주 동구 장애인복지관에서 동구청 직원과 복지관 이용자들이 장애인 가정에 보낼 모듬전, 송편, 마스크 등이 담긴 명절 키트를 제작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남구, 실향민 16명 이야기 영상에 담아...30일 상영회

“TV에 내 고향 개성 나오면 가슴 무너져” 그리움이 한이 된 구구절절 사연들 ‘떡떡’

“임진강까지 간다고 한국 들어올 때 때라 들어오겠다고 어머니께 약속했는데... 못지켰어.”

영상 속 김천수(89)씨는 어머니와 했던 약속을 70년째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읊조리며 한숨을 쉬었다.

김씨는 영상에서 옛날 16살짜리 소년이 흰머리와 주름 깊게 파인 얼굴의 할아버지로 변하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고향인 경기도 개성 사직동에서 떠나온 얘기를 10분 동안 이어갔다.

김씨는 “형님들한테 징집되니까 먼저 도망가라고 하면서 내가 어머니와 동생을 맡겠다고 했거든, 한국 전쟁 때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최전방에서 군인들에 의해 제지됐다”고 했다. “피난와서 형님들을 만났는데, 엄마랑 동생 둘만다고 했던 나를 보니 놀랄 수 밖에 없지”라며 눈시울을 붉히는 장면도 담겼다.

김씨는 이산가족 상봉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신청했지만 단 한번도 선정되지 못

다고 했다. “TV에 개성이 나오면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남은 일은 고향가서 동생 만날 일 밖에 없는데...”, “(엄마랑 동생 생각만 하면) 슬프지, 눈물만 나오지, 몇 십년을 못봤는데, 동생들 명이 길면 통일이 되어서 만나는 거고 아니면 못만나는 거지”라는 말을 할 때는 슬픈 표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김씨는 광주시 남구가 관내 실향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한 ‘가족에게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라는 사업에 참여해 영상 편지를 썼다. 남구는 김씨 뿐 아니라 북녘에 가족을 둔 실향민 16명의 그리운 고향, 보고싶은 가족 이야기를 영상에 담았다. 영상 속 실향민들은 가족들 간 생이별 이야기, 수십년 간 고향을 떠나 가족을 그리워하는 힘으로 버티던 인생, 언젠가 만날 희망을 키우며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풀어놓았다.

이들의 영상은 향후 남북 교류시 북쪽 가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오는 30일 오후 3시에는 이들과 영상을 함께 보는 상영회도 마련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검찰,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징역 3년 구형

변호사법 위반·유용·부정청탁 혐의

검찰이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5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6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조례가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는 데 힘써준 대가 명목으로 클럽 운영자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또 2016년~2017년 사이 주류회사 자

금 1억1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 지난 2017년 공무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건넸다가 거절당하는 등 공직자에게 100만원을 넘는 금액을 제공하려고 의사를 표시한 혐의(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법위반) 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도 증인신문을 위해 한 차례 더 재판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애초 밝힌 대로 ‘결심’(結審) 공판으로 진행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회장)이 지연한 것”이라며 “4개월이나 졌지만 아무것도 안했다. 피고인도 알아듣고 가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서 이 회장의 재판 지연 행태를 경

고한 바 있다. 지난 5월부터 이 회장측 요청으로 두 차례나 재판이 미뤄진데다, 혐의를 거쳐 잡아놓았던 증인 신문일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불성실한 재판 태도 등으로 1년이 다되도록 1심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이 회장측 변호인은 “변호인 변경에 따른 기록 검토 필요성” 등을 언급했지만 재판부는 “재판 지연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었다.

이 회장측은 “공소사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절차 등이 미숙한 탓에 재판이 지연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태풍 영향 오늘 비...추석 연휴 대체로 맑음

올 추석 연휴 기간(18~22일) 날씨는 대체로 맑겠으나 추석 당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찬투)이 동쪽으로 빠져나간 18일부터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추석인 21일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을 통과하면서 광주·전남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추석 연휴 기간 광주와 전남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27도 안팎, 일 최저기온은 19도 내외의 기온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제주도 남서쪽 먼바다에 위치한 태풍 찬투가 점차 북동진하며 17일 새벽~오후 제주도 남

쪽해상을 지나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은 태풍의 영향으로 17일까지 10~60mm의 비가 내리겠으며, 전남동부 권에는 30~80mm 많은 곳에는 120mm 이상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이 기간 전남 남해안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70~110k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며, 해상에서는 최대 8m의 높은 파고가 일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창립 4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대상 300만원 상당(1명) 금 10돈

1등 100만원 상당(1명) 건조기

2등 50만원 상당(2명) 청소기

3등 30만원 상당(3명) 무무밥솥

4등 10만원 상당(10명) 에어프라이어

5등 5만원 상당(20명) 완두콩떡

※본 경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공공은 본인부담이며 상기 조건은 추첨일까지 유지자에 한합니다.

경품행사기간 : 6월 21일 ~ 10월 31일

MG대광새마을금고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자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

#경품추첨일 2021년 11월 10일 #경품추첨장소 대광금고 본점 3층 회의실

#경품응모권 지급 조건 ①저동이체 신규 및 변경(최소 5건 이상) ②출자금 신규 및 추기(최소 30만원)

#가입기본선들 고급 통장케이스 증정